

젤렌스키 “전시에 선거 치르면 우크라 분열 쓰나미”

페도로우 선거 요구에 공개 반박…스타링크 이용 갈등 시사
“러, 흑해 휴전 거부…자국 에너지시설 공습 중단 보장 요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은 전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 기념 35주년을 이틀 앞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시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미하일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내놓은 전시 선거 요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한 발언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당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장기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무인항공기(UAV·드론)를 앞세운 전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다가 지난달 돌연 해임됐으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선거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2019년 5월 대선에 승리해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5월로 5년의 임기가 종료되어야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건너뛴 채로 계속 재임 중이다.

이달 초 발표된 우크라이나 사회연구센터(Socis) 설문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가 신뢰도 1위를 차지했고, 페도로우 전 장관이 2위였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위에 그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과거에도 선거를 치르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어떤 동맹국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러시아 영토 내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페도로우 전 장관과 갈등이 불거졌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올해 초 페도로우 전 장관은 러시아 내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해도 된다는 스페이스X 소유주 일론 머스크의 허락을 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



인만 받으면 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사안을 공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머

스크는 러시아 영토 내 스타링크 사용을 거부했고, 당신(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를 속였다”라는 반응을 보여 백악관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머스크가 러시아로 날아가는 드론에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긴장 고조 행위라며 꺼리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거를 접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고 개발 중인 스타링크와 유사한 대안 인공위성 인터넷 통신 시스템이 올해 12월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응해 유럽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흑해를 통과하는 농산물 운송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자며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자국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 금지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을 치른 후 병력 30만명을 추가로 징집할 계획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50만명 규모의 병력 증강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앞서 李대통령과 회담 필요”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
“가급적 서울 방문을” 제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보수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이뤄져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 일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해야 하며,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미관계에 대한 의지와 김정은과의 대면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히 전달

할 것이며, 노력은 올가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트럼프는 2018년에 했듯이 한국 국회에서 또 다른 주요 연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올가을의 모멘텀을 구체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몇몇 유럽 동맹과 달리 한국은 핵심 가치 접근을 거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공개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이란 전쟁 노력을 저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런 실적을 평가하고,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단독으로 열리는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계기에 열리는 상관 없이 회담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데 서울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